

MTV 어워즈에서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 대거 수상

K팝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불리는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MTV VMAs)에서 새 역사를 썼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년 연속 수상하며 길을 닦아 놓은 이곳에서 K팝 그룹 7개 팀이 후보에 오르고, 퍼포머 자격으로 무대를 장식했다.

12일 뉴저지 푸르텐셜 센터에서 MTV VMAs가 열렸다. MTV VMAs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더불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불린다.

방탄소년단 정국은 미국 래퍼 라토와 함께 부른 솔로 곡 '세븐'으로 '송 오브 더 서머' (Song of the Summer) 상을 받았다. 이 부문엔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조나스 브라더스가 함께 부른 '두 잇 라이크 댓' (Do It Like That) 등 K팝 그룹 노래가 나란히 노미네이트 됐다.

특히 이날 '올해의 그룹(Group of the Year)' 부문 후보 8팀 중 5팀이 K팝 그룹이었다. 블랙핑크·뉴진스·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피프티 피프티 등이 이 상을



▲ 2023 MTV VMAs 시상식에 참석한 블랙핑크. 사진=VMA

두고 경합했다. 이 상은 블랙핑크가 수상했다. 블랙핑크는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정규 2집 선공개 곡 '핑크 베놈' (Pink Venom)으로 '올해의 그룹' 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베스트 K팝' (Best K-Pop), '베스트 안무' (Best Choreography), '베스트 아트 디렉션' (Best Art Direction), '베스트 편집' (Best Editing) 등에 이름을 올

렸다. K팝 그룹 중 최다 부문 후보였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올해 처음 이 상의 후보에 이름을 올려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 (PUSH Performance of the Year) 상을 품에 안았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역대 K팝 아티스트 중 데뷔 후 최단 기간에 MTV VMAs 무대에 오른 그룹이 됐다.

MTV VMAs에 첫 출연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6월 발표한 정규 3집 '★★★★★' (5-STAR) 타이틀곡 '특'으로 '베스트 케이팝'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매니악' (Maniac)으로 후보에 올랐으나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엔 수상에 성공했다. 특히 이 부문에는 블랙핑크 '핑크 베놈', 세븐틴 '손오공', 에스파 '걸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슈가 러시 라이드'와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등이 후보여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테일러 스위프트는 4관왕을 차지했다. 히트곡 '안티 히어로' (Anti-Hero)로 '베스트 팝' (Best Pop) '송 오브 더 이어' (Song of the Year) '베스트 디렉션' (Best Direction) '비디오 오브 더 이어' (Video of the Year)를 손에 넣었다.

이승기, 미국 공연 일정 중 '노쇼' 논란에 "악의적 흠집내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미국 공연 일정 중 '노쇼' 사태에 휩싸인 가운데 이는 "악의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승기는 지난달 26일과 30일 각각 LA와 애틀랜타에서 미국 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그런데 공연 후 이승기가 애틀랜타에 도착한 뒤 방문하기로 한 교민 운영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승기 측은 "식당 방문은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LA 공연 후 애틀랜타로 이동 중 허리케인으로 공항 도착 시간이 지연돼 밤 10시가 넘어서 도착했다. 공연을 위해 아티스트의 컨디션 조절이 필요했다. 교민 식당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 애틀랜타 에너지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공연 중인 이승기. 사진=higoodday.com

관객들이 먼저라는 생각이었다. 관계자 분들께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란은 이승기의 미국 투어 현지 기획사로 인해 다시 불거졌다. 기획사 측은 이승기의 현지 교민 식당 방문을 두고 "이승기 소속사에 이미 공유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현지 교민 식당이 공연 스폰서라는 건 공연 기획사가 진행한 것일 뿐, 이승기 측은 알지 못했으며 금전적 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승기 측은 해당 식당에 있던 관계자 및 소수의 사람이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교민으로 포장되고, 이승기가 팬을 무시하는 것처럼 퍼지는 의혹이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강조했다.

와규 불고기 & 양념갈비
* To Go 및 단체주문 환영

<p>wAGYU Irvine 949.418.7493 15333 Culver Dr. #440 Irvine, CA 92604 (Irvine Center Dr + Culver Dr)</p>	<p>wAGYU Buena Park 714.735.8808 7808 Orangethorpe Ave. #104 Buena Park, CA 90621 (Beach Bl + Orangethorpe Ave)</p>
<p>wAGYU Irvine 949.418.8173 3800 Barranca Pkwy. Suite Q & R Irvine, CA 92606</p>	<p>wAGYU SAND CANYON (OPEN NOW) 949.387.9469 6630 Irvine Ctr. Dr. Irvine, CA 92618</p>

최상급 양념 갈비 및 다양한 육류 판매
www.wagyumeatandgrill.com

- All Natural
- No Hormone (무 호르몬)
- No Antibiotics (무 항생제)
- No MSG